



새로운
생각! 행동! 의회!

- 2019년 제1차 국제친선교류 -
공 무 국 외 출 장 보 고 서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체결)

2019년 7월

경 상 북 도 의 회
Provincial Council of Gyeongbuk-do

공 무 국 외 출 장 보 고 서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우호협력 협약 체결)

I 출장개요

- 출 장 국 : 러시아 사하공화국
- 출장목적 : 우호협력 협약서 체결 및 민속축제 개막식 참석
- 출장기간 : 2019. 6. 26 ~ 6. 30(4박5일)
- 작 성 자 :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전종근

연번	위 원 회	직 위	성 명	비고
1	의 회	의 장	장경식	단장
2	문 화 환 경 위 원 회	의 원	이선희	
3	농 수 산 위 원 회	〃	김성진	
4		〃	김준열	
5	건 설 소 방 위 원 회	〃	김진욱	
6		〃	남용대	
7		〃	오세혁	
8		〃	박승직	
9		〃	박정현	
10	교 육 위 원 회	〃	박태춘	
11		〃	이재도	
12	공 무 원	총무담당관	전종근	수행 총괄
13		행정 6 급	유명근	수행
14		〃	홍세운	〃

○ 세부일정

일 자	시간계획		세 부 일 정	비 고
6. 26 (수)	13:00	16:45	• 인천공항 출국(13:00) • 출국 → 하바롭스크 도착	SU5451
	16:45	18:00	• 숙소 도착	인뚜리스트호텔
6. 27 (목)	11:20	12:50	• 하바롭스크 출발(11:20) → 야쿠츠크 도착(12:50) ※ 영접 :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제1부위원장 키릴린 가브리엘 대외관계 · 민족업무부 장관	SU5696
	13:30	14:00	• 숙소 체크인 및 오찬	제1부위원장 주관
	16:30	17:30	• 영구동토왕국 박물관 견학	"
	17:30	18:30	• 북동연방대학교 산하 맘모스 박물관 견학	"(직원 해설)
	19:00	20:30	• 만찬 : 무스 레스토랑	
	20:30	~	• 자유시간 및 휴식	
6. 28 (금)	07:00	12:00	• 레나 석주 자연공원 이동(관공선) • 레나공원 도착	제1부위원장 동행
	12:00	14:00	• 환영행사, 레나 석주 등반, 관람	
	14:00	19:00	• 레나 석주 자연공원 출발 → 야쿠츠크市 이동	
	19:00	22:00	• 니콜라예프 아이센 공화국 수반(대통령) 주재 공식 환영만찬 (해외 사절단 전원 참석)	키릴린 가브리엘 비탈예비치 장관 동행
6. 29 (토)	08:00	10:00	• ‘으세흐’ 민속축제장 출발(우스 하틴 행사장)	
	10:00	15:00	• 민속축제 참가, 오찬(행사장 내)	
	15:00	17:00	• 야쿠츠크 → 호텔 복귀	양복 환복
	17:00	18:00	○ 경북도의회↔사하의회 MOU 체결 • 사하 제1부위원장 환영사→서명식, 의향서 교환, 기념품 교환, 기념촬영→의장님 인사말씀→사하 제1부위원장 답사 → 단체촬영	사회자 (통역 : NEAR 2명)
	18:00	19:00	• 야쿠티야 보물고 박물관 견학	제1부위원장 동행
	19:00	21:00	• 사하의회의장 주최 환영 만찬	띄근 다른 레스토랑 2층
6. 30 (일)	06:00	10:30	• 야쿠츠크 출발(06:00) ※ 환송 :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제1부위원장 • 인천공항 도착(10:30)	R3505

<참고 : 러시아사하공화국 현황>

□ 일반현황

- 위 치 : 유라시아 대륙의 북동부에 위치
- 면 적 : 3백 10만 km² (한국의 약 30배, 러시아 전체의 17.3%로 1위)
- 지 형 : 공화국 영토의 40%가 북극권에 위치한 영구 동결지역
레나강 등 50여 개의 하천(총 150만 km)과 호수 80만개
- 인 구 : 95만 6896명 (2015년 기준)
- 주 도 : 야쿠츠크시 (31만 명, 1632년 도시 창설)
- 기 후 : 혹심한 대륙성기후 (1월 평균기온 -32.3도, 7월 평균기온 13.3도)

□ 주요산업 (2012년)

- 광산업(42.9%), 교통·통신업(10.9%), 건설업(10%)
 - 원유·가스 (현재 발견된 유전 및 가스전만 30여 개)
 - 다이아몬드 (러시아 전체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95% 차지)
 - 금(러시아 생산량의 15%, 매장량의 20% 이상 차지)
 - 산림자원(80%가 타이가 숲, 극동지역 산림자원의 50%)

<주요 면담 인사>



<니콜라예프 아
이센 행정수반>



<고골레프 표트르
바실리에비치 의회
의장>



<지르코프 알렉산
드르니콜라 예비치
제1부위원장>

II

주요활동 내용

1. 추진배경

2019년 3월,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지르코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치 제1부의장의 경상북도의회 의장 면담 요청을 계기로, 금년 5월 1일 서울에서 장경식 도의회의장과 사하공화국 제1부의장 면담 성사.

면담 과정에서 사하공화국 의회 부의장이 경상북도의회 방문을 요청하고 도의회의장이 수락, 이후 동북아자치연합사무국(NEAR)을 통해 실무협의를 거쳐 우호협력 협약체결 및 사하공화국 민속축제(으세흐) 개막식 참석 등 주요일정이 최종 확정되었음

2. 일정별 세부활동 내용

가. 6월 26일(수) : 인천 출국(13:00), 하바롭스크 도착(경유지)

나. 6월 27일(목) : 야쿠츠크 도착(13:00), 북동연방대 맘모스 박물관

- 공항입국시 국빈의 예로 경북도의회 방문단을 환영. 특히 입국장에서 전통의상을 입은 직원들이 현지음료를 제공하는 의식을 준비하는 등 특별한 의전으로 방문단에게 깊은 인상을 남김



⇒ 한국에서도 외빈 초청시 한복을 적극 활용하여 내빈들에게 한국의 미를 우선적으로 각인시킬 필요 있음

- 북방연방대학교 산하 맘모스 박물관은 휴관일임에도 도 방문단을 위해 소속 직원이 대기. 사하공화국 제1부의장은 공항입국 시부터 전 일정을 동행, 방문단을 최대한 배려하는 인상을 깊이 심어 줌
- 특히 박물관에서는 맘모스 복제기술과 관련, 현재 한국대학과 연구교류를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더 많은 교류를 희망하고 있음



다. 6월 28일(금) : 레나강 선상 간담회, 행정수반 주재 공식 만찬

① 레나강 선상 간담회

- 레나강은 약 4,400km로 세계 10대 강에 포함됨
- 사하의회에서는 관광선을 이용한 왕복 9시간의 관람 일정을 준비하여 충분한 선상 간담회 시간을 가짐
 - 사하공화국에는 고려인이 다수 거주하며 한국학교도 유명
 - 강덕수 교수가 북동연방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바야오기술대학교와 복제기술 연구에 한국 대학에서도 참여
 - 사하공화국은 전통 활제조와 활쏘기 재연을 통해 문화를 보존하는데 경상북도와의 협력을 희망
 - 양궁보급 및 동계스포츠 개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 특히, 킬링 지도자 교류 등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을 희망
- 문화, 체육, 의료관광 교류실시 등이 최대 관심사항
- 레나강 교량공사에 해외 컨소시엄을 추진 중이라 한국의 교량 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며 추후 방문시 관계기관과의 교류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
- 사하의 민속공연극장과 경북도와의 공연극장 교류추진 희망
- 자연유산지역 등산시 전통 입산 신앙행사를 현지에서 개최하는 등 자국의 전통문화 알리기도 열정적이고 치밀하게 준비
- 생일을 맞은 도의원에게는 케익을 별도 준비하는 등 세심하게 방문단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제공



② 행정수반 공식 환영만찬

- 행정수반 공식 환영만찬은 당초 6월 27일 경북도의회와 단독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방문에 임박하여 발생한 산불화재로 인해 사하공화국 최대 민속축제(으세호) 해외 축하사절단 대표들과 공동개최로 변경(해외 9개국 대표단 참석)
- 환영만찬 시 2018년 11월 개최되었던 ‘한·러 지방협력포럼’에 참가했던 키릴린 가브릴 비탈예비치 대외관계 및 민족업무부장관이 도 방문단과 조우, 우호협력 지원을 약속

- 장경식 도의장은 인사말에서
 - 경상북도는 면적에서 사하공화국의 163분의 1이지만
 - 세계적인 철강기업 포스코와 삼성, LG, 등 첨단 IT 산업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며, 최대의 농업생산지, 42개 대학과 188개의 고등학교가 있는 곳으로 소개
 - 또한 대한민국에서 문화재가 가장 많은 곳으로서, 대한민국 5천년의 역사와 20세기 산업화의 요람이며, 아울러 21세기 첨단 IT산업과 관광산업의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으로 경상북도를 소개, 참석한 사하공화국 주요인사와 해외 대표단에게 경상북도 위상을 널리 홍보함



라. 6월 29일(토) : 으세흐 민속축제 개막식, 우호협력 MOU 체결

① 으세흐 민속축제

- ‘으세흐’는 겨울이 긴 사하공화국이 해를 맞이하는 민족 최대 여름 축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종교적 성격이 가미된 민속 축제로 사하국민들은 1년 동안 이 축제를 기다리며, 들판에 약 3만명의 관중이 집결함
- 경북도에서는 개막식, 행정수반과 주요 기관단체장 참석 행사와 오찬 등에 참석하여 사하공화국 국민들에게 경상북도 방문을 알리고 친교의 시간을 가짐



② 우호협력 협약 체결 : 사하의회 No 330호

- 으세흐 축제 참가 후 사하의회에서 우호협력 협약 체결
- 협약식에는 사하의회 의원 외 사하정부 대외관계 및 민족업무부장관이 참석
- 양 의회는 협약 체결을 통해
 - 교육, 문화, 의료, 관광,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 금년 10월 경 답방형식으로 사회의회에서 방문하기로 잠정 합의



※참고 : 교류협력 의향서

대한민국 경상북도의회와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의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의향서

대한민국 경상북도의회와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 양 기관은 우호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향서에 합의한다.

1. 양 의회는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친선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켜 나간다.

2. 양 의회는 의정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사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3. 양 의회는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정기적인 방문단을 교환한다.
4. 본 의향서는 서명일로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양 의회는 관련 의향서를 상대측 의회에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본 의향서의 적용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본 의향서의 적용은 상대측 의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종료된다.
5. 본 의향서는 양 의회의 합의하에 별도의 의향서를 작성하여 협약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6. 본 의향서는 공식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본 의향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작성하여 2019년 6월 29일 사하공화국의회에서 서명 후 양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6월 29일

대한민국 경상북도의회
의장

러시아 사하공화국의회의장

IV 총평 및 향후조치

1. 러시아 사하공화국은 외빈 의전에 대해 세밀한 부분까지 배려를 하고 있으며, 향후 경상북도의회 방문시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각별한 준비가 필요
2. 대한민국과의 연구교류 등이 활발하고 문화, 관광, 의료, 체육 분야 등에서의 교류의지가 매우 강하여 향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3. 이와 관련, 금년 10월 중으로 잠정 합의된 경상북도의회 답방 시 집행부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 사하공화국과 경상북도간 실질적 교류활동이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또한 1995년 당시 사하공화국 대통령이 대한민국과의 교류에 적극적이었으나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실질적 교류확대의 동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향후 적극적인 교류추진을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
5. 이에 경북도의회에서는 금년 7월 중 러시아사하공화국 의회에 정식 초청 공문을 기 발송하였으며,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양 기관 교류확대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